

도내 건설업 하반기 수주 가뭄

지난해 대비 2.1% 수주금액 감소
올림픽·SOC사업 발주 완료 원인

도내 건설업체의 수주난이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일 대한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수주금액은 9,134억3,200만원으로 전년 9,333억2,850원보다 2.13% 감소했다. 또 지난달 수주물량도 192

건으로 올 평균 211건보다 낮게 집계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건설업체들은 연말까지 수주와 연관된 공사물량 건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계약액은 2조4,716억원으로 2015년보다 4,362억8,700만

원(15.0%) 하락했다. 수주물량의 감소는 올림픽 관련 각종 공사와 고속도로·철도 등 SOC사업 발주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특히 공사물량이 상반기에 집중되고 예산 조기 집행으로 연말로 갈수록 수주 가뭄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규기자

건설 일감 늘었는데 수입 감소 대형공사 줄고 소규모공사 늘어

강원도내 건설업계가 일감은 늘었지만 수입이 감소하는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도회장 오인철)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건설수주 건수는 14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15건에 비해 10.8%(143건)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수주액은 줄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건설공사 투찰금액은 9134억3199만9281원으로 전년동기(9333억2850만1044원)보다 2.13%(198억9650만1763원) 감소했다. 이는 도내 공공기관의 대형공사 발주물량이 줄고 일반 소규모 공사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다가오면서 관련 대형공사 수주량도 줄었고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대규모 도로공사 수주물량도 감소추세에 있다. 신관호